

# 복수 위해 감염인 혈액을 구하다니...



**김명훈**  
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

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시샘이나 질투에 대해 수치심을 갖도록 교육받아왔다.

그리스 로마신화에서 그려지는 질투심의 표출방식과 비교하면, 시샘이나 질투는 공자(孔子)의 어가 본명해편에서도 부도(婦道)의 칠거지악으로 치부되고 있을 만큼 동양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한 요소였다.

요즘은 질투를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지만, 여전히 심한 질투는 병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곤 한다. 반면, 심리학자 데이빗 부스는 그의 저서 '위험한 열정' 을 통해 질투는 수백 만년에 걸쳐 사랑의 결합관계를 보호하고 간통과 버림받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.

며칠 전 감염인들과의 대화에서 질투로 인해 복수극이 과격으로 치닫는 충격적인 부부의 사례를 접하였다. 내용인즉, 남편의 외도로 결국 이혼하게 된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 한 감염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왔다. 자신과 살 때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남편이 새로 만난 여성에게는 눈끝시도록 고분고분하고, 두 사람이 그렇게도 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

복수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. 그 여성은 이제 이혼하여 남이 된 전 남편에 대한 복수를 위해 감염인에게 혈액을 팔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.

다행히도 상담을 받았던 감염인의 따뜻한 상담으로 그 여성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마무리되긴 했지만, 이번 경우처럼 거액의 돈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분풀이로 감염인의 혈액을 사용하고자 접근했을 때 과연 감염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.

만약의 하나라도 왜곡된 유혹에 빠져 또 다른 희생자를 낳게 된다면, 법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기 어려우리라 짐작된다.

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직장과 가정에서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

뿐만 아니라,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단계부터 감염인들이 진단초기의 충격을 극복하고 다시금 생활에 정착할 때까지 심리적,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.